

# 對人關係科目을 위한 實驗實習에 관한 研究

趙 成 慶\*

- |                  |                 |
|------------------|-----------------|
| I. 序 論           | 4. 意思疏通의 方法과 技術 |
| 1. 問題의 提起        | III. 實驗實習       |
| 2. 研究의 目的        | 1. 實驗室          |
| 3. 研究方法          | 2. 參加人員數        |
| II. 對人關係의 理論과 知識 | 3. 構造的 運營方法     |
| 1. 對人關係의 必要性     | IV. 評 價         |
| 2. Johari 意識모델   | V. 結 言          |
| 3. 操作者와 實現者      |                 |

## I. 序 論

### 1. 問題提起

인간이 여러 동물들과 다른 면에서 중요한 점은, 인간은 삶의 보람을 集團生活에서 찾는다는 데에 있다. 개인이 知識이 있다 없다, 돈이 있다 없다, 용모가 나쁘다 좋다, 신체가 건강하다 약하다는 등의 價値觀도 개인이 속한 集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도 하려니와 개인의 삶이 意義가 있다 또는 없다고 결정짓는 기준도 개인이 직접 속한 小集團生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하더라도 본인이 속한 集團의 다른 구성원들이 인정해 주며 존경하며 좋아하는가에 따라 삶의 보람을 느끼기도 하며 실망하기도 한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동배 개구장이 또는 친척들과의 관계, 학교친구나 교사와의 관계, 직장동료와의 관계, 애인이나 친지와의 관계, 본인 스스로가 갖는 가정에서의 관계 등 직접 관계되는 小集團이 한 개인에게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겠다.

그 이유를 찾아 본다면, 우선 인간은 成長發展하고 自我를 實現하려는 본능을 가졌다는 점

\* 文理科大學 社會事業學科 副教授

1) Erikson, Erik H., 金鮮心 譯, 人間的 生活週期, 人間的 行動發達과 環境, 進興文化社, 1980, pp. 61~122.

이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 단계를 거쳐 매 단계마다 필요한 成長을 하게 된다.<sup>1)</sup> 그런데 인간의 육체적인 成長은 어떤 단계에서는 끝이 나고 오히려 쇠퇴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간의 심리는 끝없이 成長할 수 있고 또 成長되어야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肉體的 成長은 끝났거나 또는 오히려 쇠퇴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心理的 成長을 계속하면 生動力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반하여, 육체적으로는 건강하나 심리적 성장이 끝난 사람이라면 육체적으로는 青年이지만 心理的으로는 죽음에 가까운, 삶의 意慾이 없고 삶 자체의 의미도 상실한 삶을 산다 하겠다.

이러한 心理的 成長은 대개 다른 사람과 相互作用하는 對人關係의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團體生活은 개인으로 하여금 心理的으로 成長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成長이란 뜻은 원래 中性이라 부정적 방향과 긍정적 방향을 모두 내포한다. 그러므로 團體生活 자체도 중요하지만, 단체생활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成長을 촉진시키는 對人關係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바람직한 방향이란 물론 각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共感할 수 있는 客觀的인 것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우선 그 첫째는 自己自身에 대한 올바른 認識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動機를 가지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나의 능력의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하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自我意識(self awareness)을 갖는 것이다. 둘째는 他人에 대한 올바른 理解라 하겠다. 他人의 動機나 必要性을 정확히 측정하고 同情하는 것은 왜곡된 편견을 갖고 行動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다. 세째는 본인과 타인이 갖는 環境과의 관계를 知覺함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生活哲學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그 哲學이 충분히 統合的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주위환경과 이탈시켜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알고 항상 주위환경에서 생기는 변천에 대하여 관찰하고 여기에 대한 知識을 넓히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他人에게 自身을 비추어 보고야 나를 인식하며, 나를 인식할때 만이 他人이 의미가 있게 되며,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만이 주위환경이 특수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sup>2)</sup>

실생활에서 對人關係의 發展성은 대개 集團에서 생긴다. 이 集團이라 함은 직장이나 교육을 위한 공식적인 組織集團을 뜻하기도 하며 각자가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만드는 非公式集團도 포함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集團에서 바람직한 對人關係를 유지하면서 그 관계를 통해 자기의 잠재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成就感과 함께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 또한 그 集團 自體의 成長과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어떤 사람은 자신의 풍부한 잠재능력과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여러 조건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對人關係를

2) Mead, George H., On Social Psycho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pp. 187~196.

유지하지 못해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편 삶의 만족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그 集團自體도 成功하지 못하고 침체되거나 해체되는 결과를 낳고 만다.

現代人은 교육과정에서 전공이 세분되어 그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다양하게 學習하고 일반적인 지식도 교양을 통하여 學習한다. 결국 전문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과거 어느 때보다 풍부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리한 人間으로서 사회에 진출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현대인의 사회생활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現代人에게 있어 集團生活을 통하여 自我를 실현시켜야 되는 必然性은 증대되었으나, 대인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여건은 오히려 약화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히려 現代社會는 개인들로 하여금 對人關係를 自身の 成長과 나아가서는 社會發展에 기여하도록 하기보다는 他人을 조정하고 自身을 기만케 함으로써 오히려 바람직한 機能과 成長을 저해하는 방향에서 이용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現代生活은 物質的으로는 풍요하지만 개개인의 삶은 실망과 초조 그리고 혼돈 속에서 生氣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sup>3)</sup>

## 2. 研究目的

崇田大學校 社會事業學科에서는 일찌기 1972학년도부터 對人關係를 3학년의 전공 선택과목으로 선택하여, 3학점의 科目으로서 適當 2시간은 강의시간으로 다른 2시간은 實驗實習으로 배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科目은 本 研究者가 담당하여 왔는데, 本人은 미국 유학 당시 社會學 學部 과정과 社會事業 大學院 과정에서 對人關係를 理論과 實習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과목을 처음으로 담당할 때에는 한국 행동과학연구소에서 자문교수 자격으로 感受性訓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다.<sup>4)</sup> 이는 그 당시 각 산업체에서는 직원들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教育 프로그램으로서 感受性訓練에 많은 흥미를 갖고 그 프로그램을 지도할 인력을 필요로 하여 행동과학연구소가 산업체에서의 훈련을 담당할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5)</sup>

對人關係論은 다양한 제목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가르쳐진다. 즉, 人間關係, 集團過程, 小集團論, 集團相談 등의 과목으로 경영학, 의학, 신학, 행정학, 교육학, 사회사업학 등 人間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분야에서 教育되기도 하며, 教科內容에 있어서도 담당하는 교수의 전공분야에 따라 理論的 準據들과 접근방법이 달라지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강의와 독서를 위주로 가르치기도 하며, 다른 경우에는 實習을 위주로 운영하기도 하고, 강의와 실습을

3) Shostrom, Everett L., Man, the Manipulator, Bantam Books, 1968, pp. 3~10.

4) 조성경, 감수성 훈련 프로그램, 행동과학연구소, 1972.

5) Cho, Song Kyong & Kim, Hwa Joong, Sensitivity Training in Korea, Korean Institute for Research in Behavioral Sciences, 1973.

병행하기도 한다.

또한, 敎育의 場도 다양하여 대학에서 교과과목으로 가르치기도 하며 상담실, 직장현임교육프로그램으로 채택되기도 한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 敎育을 위한 특수기관이 있는데, Eslen Institution 과 National Training Laboratory 가 바로 그 代表的 機關들이라 할 수 있겠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다양성 때문에 對人關係 學科目은 敎育의 연구와 敎育방법이 산발적으로 발전되기 쉬우며 그 결과 學問的 發展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열려 있는 강의내용에서 보다는 오히려 實習의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직접적인 目的은 講義內容에서 提供하는 理論과 知識을 정리하고 實習內容과 方法을 體系化하고 評價틀을 만드는 데에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對人關係 科目의 實效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 모델을 기초로 계속된 연구가 가능해지며 이 學科目을 대학敎育에서나 社會敎育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深化 내지 擴散시키는데 기여하리라 믿는다.

### 3. 研究方法

문헌조사를 통하여 對人關係와 관련된 理論을 찾는다. 그리고 발견된 理論을 학기초에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강의나 독서를 통하여 知的學習이 연결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순서로 배열한다.

다음에는 강의나 독서내용을 認知 또는 認知된 內容을 확인하여 內面化시키는 과정으로 또는 內面化시킨 內容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實驗實習을 한다. 그 實驗된 內容을 과거 수년동안 연구자가 실시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體系的으로 정리한다.

강의와 實驗을 병행한 학습의 결과에서 생긴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評價方法을 찾는다. 評價方法은 이 과목의 效果를 측정하는 데에도 뜻이 있겠지만, 그 보다는 중요한 기능은 이 學科目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學問的 活動이라 하겠다.

評價方法의 한 가지로서 設問調査는 학기초에 과목이수자(實驗集團)에게 실시하고 같은 設問紙를 학기가 끝날 때 다시 작성하게 하여 그간의 變化度를 측정할 수도 있고, 또 實驗實習을 하지 않는 母集團과 實驗實習을 병행하는 實驗集團과 비교하는 目的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 II. 對人關係의 理論과 知識

對人關係의 重要性은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한 개인이 個性을 갖게 되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社會생활을 활발하게 영위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작용함을 序論에서 언급하였다. 즉 한 개인이 社會적으로 機能하는 데에는 對人關係 能力이 크게 작용함을 암시한다. 그런데 對人

關係 能力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자연히 얻어지는 속성이 있어 이것을 배우려고 특별히 개인의 삶을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認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對人關係 能力은 學習된 것이며 이제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藝術과 같이 體系的으로 理論과 知識을 배우고 實習을 통하여 기술을 익혀야 될 것이다.

### 1. 對人關係의 必要性

人間은 자신과 물질적 환경 사이에 관계를 만들고 지탱해야 하는 生理的 必要性을 가졌다. 이러한 生理的 必要性을 무한정 충족시킨다고 해서 만족한 상태를 유지하지는 못한다. 이를테면 人間의 신체가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하면 물에 빠져 죽고 물의 양을 너무 적게 흡수하면 목이 타서 죽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 필요성은 身體內에 포함한 물의 양과 身體外의 물의 양을 잘 조절하여 적절한 均衡狀態를 유지해야 함에 있다.

對人關係도 개인과 그의 환경 사이에 적절한 관계를 형성함이 중요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조정하려면 責任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지며, 너무 적은 社會環境과의 관계는 불안정하고 불만족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生理的으로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肉體的으로 병이 생기고 또 때로는 죽게 되듯이 對人關係도 불만족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정서적으로 병이 되는 어려운 상태로 이끌리며 더욱 심하면 삶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도달하게 된다.

William C. Schutz 에 의하면 對人關係의 必要性은 3가지로 구분된다.<sup>6)</sup> 그 첫째는 包容의 欲求이며, 둘째는 統制의 欲求이고, 셋째는 愛情의 欲求다. 그런데 한 對人關係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變數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 1) 個人의 行動이 他人에게 관찰되는 정도

이 變數는 행동과 느낌으로 나누어 지는데 행동은 他人에게 쉽게 관찰되나 느낌은 自己 自身이 더 잘 알게 된다.

#### 2) 對人關係의 向方

自身이 他人에게로, 他人이 自身에게로, 自身이 自身에게로.

#### 3) 行動의 位置

行動이 包容, 統制, 愛情 영역에 포함되는가 여부.

#### 4) 關係의 常態

그 關係가 원하는 것인가, 理想的인가, 열려스러운가, 또는 병적인가.

6) Schutz, William C., The Interpersonal Underworld, Science & Behavior Books, California, 1966, pp. 13~33.

한 個人의 心理的 滿足은 모든 사람들과 包容, 統制, 愛情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包容, 統制, 愛情의 關係를 맺지 않는 연속성의 어느 지점에서 능동적으로 편안한 關係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自己 自身에게 包容, 統制, 愛情의 關係를 맺게 하는 것으로부터 다른 어떤 사람도 自身에게 包容, 統制, 愛情의 關係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연속성의 어느 한 지점에서 수동적으로 편안한 關係를 유지하는 데서 오는 느낌인 것이다.

對人關係의 행동 領域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行動의 缺乏은 그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고, 過剩은 만족시키기 위해 애써 노력하는 것이며, 理想的 行動은 그 필요성을 만족시키며, 이 밖에 다른 하나는 病的 行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行動을 여러 형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對人關係의 行動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려니와 어떤 관계가 바람직 하지 않게 발달되었을 때 관계개선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개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초기에 缺乏, 過剩, 病的 行動은 누구에게나 긴장감을 갖게 하지만, 對人關係를 통한 成功的 經驗은 누구나 그 상태를 극복하고 긴장감 없이 社會生活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 2. Johari 意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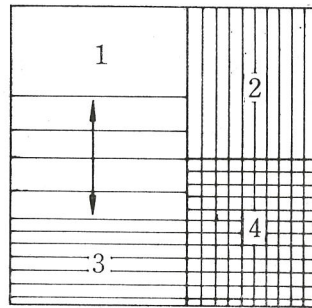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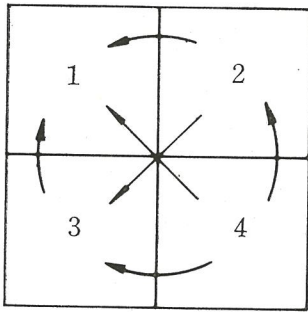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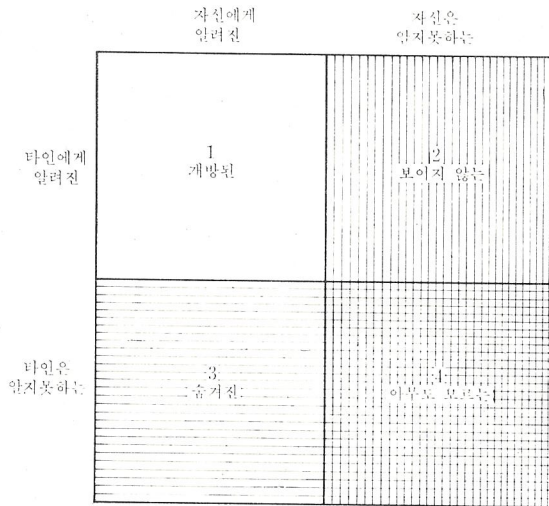
意識(awareness)하고 自覺(consciousness)하는 것은 인간의 특유한 속성이다. 어떤 상태를 안다는 사실은 지극히 人間的이며 人間的의 相互作用에 대한 어떤 고찰에서도 안다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다. 특히 自身의 느낌, 行動, 動機를 알고 또한 他人의 느낌, 行動, 動機를 안다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일이다.

그런데 Joseph Luft는 복잡하지도 않으며 보편적으로 모든 對人關係에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Johari(John과 Harry가 함께 이 모델을 개발하였음) Awareness Model인 것이다.<sup>7)</sup>

즉, 이 모델에서는 他人과의 關係를 맺고 있는 總體的인 한 個人을 4등분 한다. 그리고 4등분의 구분은 行動, 느낌, 動機를 意識함에 기초를 두었다.

- 1) Quadrant 1 : 개방된 부분으로 行動, 느낌, 動機가 自身이나 他人에게 알려짐.
- 2) Quadrant 2 :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行動, 느낌, 動機가 他人에게는 알려졌으나 本人은 알지 못함.
- 3) Quadrant 3 : 숨겨진 부분으로 本人은 알고 있으나 他人은 알지 못함.
- 4) Quadrant 4 : 아무도 모르는 부분으로 行動, 느낌, 動機가 本人이나 他人에게 알려지지

7) Luft, Joseph, Of Human Interaction, National Press Books, California, 1969, pp.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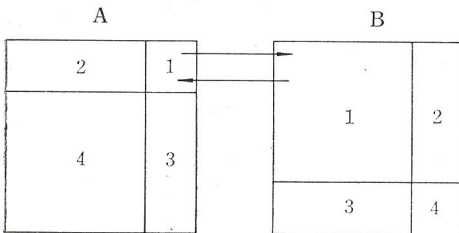


않음.

이러한 概念의 모델은 對人關係를 통해서 어떻게 개방된 부분을 확대하거나 또는 다른 세 부분을 축소시킬 수 있는가 도표를 그려가며 명료하게 그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Quadrant의 크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方法이 긍정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어떤 方法이 對人關係를 방해할 수 있는가도 설명할 수 있다.

그 밖에 對人關係에 있어서 왜 의사 소통이 잘못되는가, 관찰자가 있는 對人關係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集團에서의 相互作用은 어떤 力動性을 가지는가, 싸이코 드라마는 어떤 方法이 있으며, 指導力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 등 많은 영역에서 對人關係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이 모델을 適用할 수 있다.



對人關係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이 모델을 다양하게 適用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들 수 있다.

- 1) 어떤 Quadrant의 변화는 다른 나머지 Quadrant에도 영향을 준다.
- 2) 相互關係되는 어떤 行動을 숨기거나 부인하거나 모르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소비된다.
- 3) 위협을 느끼는 상황은 意識을 감소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서로 신뢰함은 意識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 4) 강제적인 意識(노출시킴)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일반적으로 효과도 없다.
- 5) 對人關係에서의 學習은 Quadrant 1이 확대되고 다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Quadrant가 작아지는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다.
- 6) 他人과 함께 일한다함은 충분한 영역의 자유로운 활동을 조장한다. 즉 관련된 사람들이 현재 당면한 과제에 그들의 資源이나 技術을 더욱 더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 7) 첫번 Quadrant가 작으면 작을수록 의사 소통은 불완전하다.
- 8)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호기심이 있다. 그러나 그것도 관습이나 社會訓練 또는 여러가지 공포 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 表出될 수 있다.
- 9) 感受性(sensitivity)이란 行動의 은밀한 부분, 즉 Quadrant 2, 3, 4를 바르게 안다는 뜻이다. 물론 상대가 그것을 보전하기 원한다면 그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 10) 실제 경험을 통하여 集團過程에 대해서 學習한다 함은 全體로서의 集團이나 個人 參與자들이 意識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된다
- 11) 集團이나 參加者들의 價値體系는 集團生活에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도전당할 때 알게 된다.

### 3. 操作者와 實現者

社會的 現象은 인간을 操作者(manipulator)로 만드는 경향이 많음을 행동과학자들은 발견한다. 인간은 원래 操作者로 태어나지는 않으나, 成長하는 과정에서 배워지는 많은 學習이 操作者들의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상품선전, 영화, 스토리, 텔레비존, 학교생활 교우관계에서도 그렇거니와 가정생활에서도 그렇다. 보체서 어른들의 주목을 끌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자식을 건전하게 養育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부모의 느낌을 교묘히 이용하여 부모를 유혹하여 자기의 義務를 회피하려는 젊은이들도 있다. 전지전능한 아버지의 態度, 연약한 자기 입장을 두둔하려는 어머니로 부터 操作하는 方法을 배운다.

Everett L. Shostrom은 操作者란 自身の 능력을 自己의 뜻있는 삶을 영위하려는 것 보다



他人을 조절하려는 目的에만 이용하려는 사람이라고 定義한 다음, 操作者의 體制를 밝히고, 操作者의 態度를 구분하여 自我實現者와 비교하면서 對人關係를 통해 實現의 目的을 달성하는 方法을 제시하고 있다.<sup>8)</sup>

1) 操作者의 體制

能動的——적극적 方法으로 他人을 操節한다. 自己의 약한 면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항상 강한자들 편에 선다.

受動的——自身을 포기하고 他人으로 하여금 自身을 조절하게 한다.

競爭的——삶을 계속 승패의 경쟁으로 보고 他人들을 항상 競爭의 對象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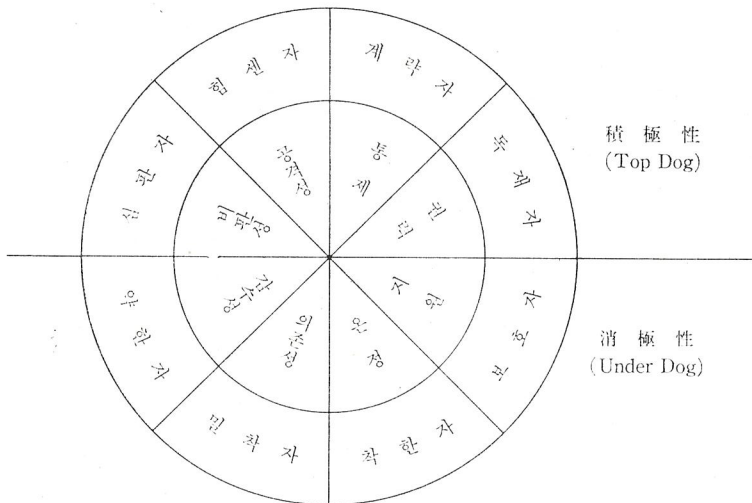
無關心——희망이 없다는 태도로 뒤로 물러선다. 능동적일 수도 있고 수동적일 수도 있다.

2) 操作的 形態

操作者들은 크게 積極性과 消極性의 두 종류로 구분되며 각 종류는 또 네 형태로 나누어진다. 어떤 형태는 다른 성질의 相對形態와 共生의 關係를 유지함을 이 理論에서 주장한다.

3) 操作者와 實現者와의 비교

操作者의 반대 표현은 實現者(actualizer)라 하겠다. 自身에게 충실하며 自己의 機能을 충분히 활용하고 自己의 삶을 더욱 보람있게 생활하는 사람이다. 自己의 삶이 보람있게 될 수 있는 이유는 自己가 갖고 있는 모든 潛在能力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Shostrom, Everett L., Man, the Manipulator, Bantam Books, 1968, pp. 11~39.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기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자신에게 주는 모든 能力과 與件을 자유롭게 숙여 멍인으로 만든다. “操作者들은 ‘식양’에 대해서 말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정말 자연을 즐기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Shostrom은 말한다. 그러므로 操作者가 實現者로 변한다함은 죽음에서 삶으로 復活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操 作 者

(1) 기만(가짜, 속임수)

操作者는 속임수를 써서 남을 조정한다. 연극을 꾸며 그럴싸한 인상을 준다. 그의 表現된 느낌은 당면한 경우에 맞게 意識的으로 선택된 것이다.

(2) 意識을 못한다(지루함, 죽음)

操作者는 진실한 삶의 문제를 모른다. 그는 단순히 自己가 원하는 것만 보고 듣는다.

(3) 統制한다(폐쇄적, 인위적이다).

操作者는 人生을 장기 두는 것 같이 산다.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정하고 조정당하며 動機는 상대방부터 잡고 있다.

(4) 냉소적이다(不信한다)

操作者는 근본적으로 自身이나 他人을 믿지 않는다. 결국 人間自體를 믿지 않는다. 人間關係란 단지 조정하든지 조정당하는 것으로 본다

4) 對人關係를 통한 實現의 方法

人間은 태어날때 부터 공통성도 가지고 또 각자의 독특성도 가짐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個人은 각자 自身の 독특성을 認定하고 주장함이 필요하며 他人들도 이런 人間으로 認定함이 중요하다. 즉 他人을 操作의 대상으로 대하는 관계는 “It-It”의 관계가 될 것이며, 他人을 人間으로 존중하는 관계는 “Thou-Thou”의 관계가 될 것이다.

### 實 現 者

(1) 솔직(투명하고, 진실하고, 근거있는)

어떤 느낌이라도 솔직히 表現한다. 表現하는 사람으로 자신에게 진실하다.

(2) 意識한다(반응적, 생동적, 흥미를 가짐)

實現者는 自身에 대해서나 他人에 대해서 충분히 듣는다. 그 밖에 다른 요소나 진실된 부분에 대해서도 意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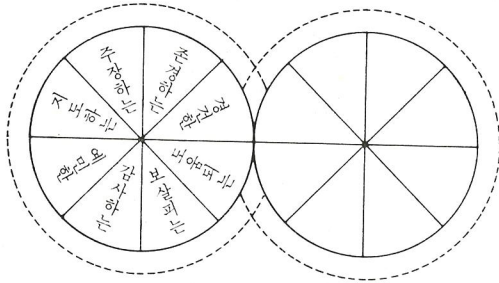
(3) 自由(자연적, 개방적이다)

自身の 潛在能力을 발휘하기에 자유롭다. 自己 삶의 주인이며 主體이고 다른 사람의 꼭두각시나 目的이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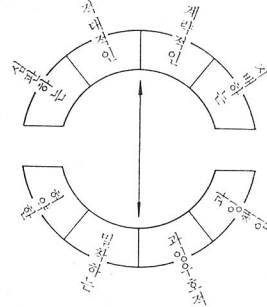
(4) 신뢰한다(믿음)

實現者는 생활에 충실하며 人間關係를 맺는데 自身이나 他人을 근본적으로 믿는다.

人間 對 人間の 접촉



操作關係



그러므로 對人關係에서는 상대에게 강요하기 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願하고 필요로 하는가를 밝히고 명령하기 보다는 무엇이 더 좋겠음을 표시하고, 관대함 보다는 서로 수용하고, 복종하는 척하는 것 보다는 상대방의 願에 따라 진지하게 항복하는 表示가 중요하며, 양극으로 구분되어 거리를 유지하는 表面的인 關係보다는 總體的으로 內面的인 가까운 관계가 훨씬 바람직한 것이다. 즉 순수한 人間 對 人間の 接觸이 중요한 것이다.

#### 4. 意思疏通의 方法과 技術

고등동물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意思疏通의 方法을 가지고 있다. 그 중 人間이 오늘날과 같은 높은 수준의 문명을 지닐 수 있게 되었음은 言語를 疏通方法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學者들이 동의한다. 즉, 人間文化의 가장 귀한 유산은 言語라 하겠다. 그러나 現代人들은 意思疏通 方法으로 言語에 너무 의존하는데 問題가 있다.

그 문제의 첫째는 言語는 주로 知的作用에 의하여 표현되고 받아들여 진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생활은 조직적이며 복잡하게 얽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利害關係에 얽매어 있어 당장 사소한 일에 솔직히 표현했다가는 뒤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知的作用인 言語表現이 항상 진실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意思를 표현하는 그 자체도 피하게 되는 可能性이 있다.

둘째, 우리 인간의 身體構造는 몇 개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他人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 들이고 있다. 視覺, 聽覺, 嗅覺, 味覺, 觸覺이다. 그런데 言語만 사용하는 경우 극히 일부의 감각기관만 意思疏通에 이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對人關係를 위한 효과적 意思疏通에서는 본인의 감각기관을 총동원해서 상대방이 보내는 意識의 신호 뿐 아니라 無意識의 신호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살아 있는 인간은 계속 자기의 느낌 상태를 알리는 신호를 외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느낌을 意思疏通의 기초로 중요시 다루어야 된다는 주장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知的作用에

의하여 조작되지 않기 때문이다(물론, 배우와 같이 특수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실 對人關係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느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다.

對人關係에서 느낌에 대한 態度를 검토하면 그 관계는 심각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 그 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他人이 과거에 가졌던 느낌을 다룬다.
- 2) 現在의 他人의 느낌을 다룬다.
- 3) 過去의 나의 느낌을 다룬다.
- 4) 現在의 나의 느낌을 다룬다.

對人關係에서 가장 心理的 부담이 없이 나의 느낌을 처리하는 方法은 1)項이고, 가장 심리적 부담이 큰 것은 4)項의 方法이다. 그러나 쉬운 方法에 의한 관계는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가장 심리적 投資가 주어진 관계는 의미있고 진지한 관계로 유지되거나 발전된다 하겠다. 즉 가장 가까운 對人關係에서는 현재 이 곳에서의 나의 느낌이 중요한 것이다.

느낌을 對人關係에서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 1)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 人間을 人間답게 한다.
- 2) 느낌이 높아지면 전기 시설의 “휴즈”기능을 갖는다.

화가 났음은 對人關係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리는 신호다. 긍정적인 느낌은 對人關係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알린다. 즉, 對人關係에서 상대를 믿고,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마음의 변화를 자유롭게 가지며 成長한다는 뜻이다.

- 3) 느낌을 執念의 테두리안에 두고 對人關係의 診斷資料로 사용한다.

執念은 선택되는 것이다. 대개 우리는 다른 데에는 執念할 줄 알게 學習되어 왔으나 느낌에 執念하는 데는 소홀해 왔다. 뒷사람에게 부당하게 야단 맞은 사원은 自己가 화가 났음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대신에, 뒷전에서 뒷 사람을 批評하거나 다른데서 화풀이 하는데 執念하는 것이 일반 現象이다.

효과적인 意思疏通이 이루어지려면 言語的으로는 적합한 단어선택, 개념의 올바른 파악, 앞뒤가 맞는 文章構成, 상대의 느낌을 읽고 본인의 느낌에 執念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技術이 필요하게 된다.<sup>9)</sup>

本人이 他人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술로서는 첫째, 意譯이다. 自身이 상대의 말을 얼마나

9) 趙成慶, 社會事業教育에 있어서의 對人關係論의 重要性, 社會事業學會誌, 韓國社會事業學會, 1979, pp. 123~127.

잘 이해하였나 알아 보기 위하여 상대의 말을 자신의 말로서 표시해 보는 方法이다.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바꾸어 意譯해서 본래의 말보다 더 세밀한 내용 또는 한 단계 진전된 內容으로 反問하는 것이다. 意譯은 상대의 意思를 정확히 파악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말에 흥미를 표시하기도 하여 對話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키는 효과도 있다.

둘째는 知覺檢討다. 自身은 상대방의 느낌이 어떻다고 知覺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상대방에게 물어 檢討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현재 갖는 느낌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反應일 수도 있고 이 관계 이외의 다른 原因에서 생긴 것일 수도 있다. 상대방의 느낌을 추측하고 檢討하지 않는다면 많은 경우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知覺檢討는 상대방의 느낌을 評價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한다는 뜻이다. 느낌을 존중받을 때 사람들은 人間으로서 대우 받음을 알고 호감을 갖고 솔직해지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다음은 상대방이나 自身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技術이다. 그 첫째는 行動敘述이다. 지금 自身은 상대방의 어떤 行動에 반응하고 있음을 알리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行動을 나 自身이 어떻게 관찰하였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가능한 대로 명확히 敘述해 주는 것이다. 이 技術은 무엇이 실제로 생기고 있나 예민하게 관찰하는 데서 發達된다. 이 훈련이 잘 되고 나면 과거에 내렸던 많은 結論들이 관찰할 수 있는 사실에 입각했던 것 보다는 自身의 不安定했던 느낌이 많이 작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둘째로 自身의 느낌을 敘述하는 것이다. 나의 느낌을 상대에게 敘述하지 않는다면 나의 情緒反應을 상대방이 다른 것으로 知覺할 가능성이 있다. 얼굴을 붉히는 反應은 당황했거나, 즐거웠거나, 불쾌했거나, 단순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가지 原因의 表現이다. 本人이 왜 自身의 얼굴이 붉어졌다고 말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그 理由를 알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느낌이든 부정적인 느낌이든 현재 자기의 느낌을 통하여 表現하는 것이 중요하다. 肯定的 느낌 表現은 현재의 관계가 더욱 바람직하게 진전되는데 공헌할 것이며 否定的 느낌 表現은 현재의 관계에서 갖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헌할 것이다.

上記한 네 가지의 理論과 知識은 강의내용이고 그 밖에 對人關係의 發達過程,<sup>10)</sup> 去來分析(transactional analysis),<sup>11)</sup> 사랑의 技術<sup>12)</sup>은 課題로서 讀書케 하여 그 內容을 시험에 포함시키거나 레포트를 作成하게 하였다.

10) 조성경 상계서, pp. 122~123.

11) Harris, Thomas A., 李炯得·李星台 共譯, 人間關係의 改善과 治療, 中央適性研究所, 1974.

12) Fromm, Erich, 이용호 옮김, 사랑에 관하여, 백조출판사, 1973.

### Ⅲ. 實驗實習

理論이나 知識을 강의와 독서를 통해서 배운 사실만 가지고는 실생활에서 對人關係能力을 향상시키기엔 불충분하다. 理論과 知識은 본인들이 직접 相互作用해 보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가지 상황에 實際行動으로 대응해본 다음에야 實用性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對人關係의 實驗實習은 학생으로 하여금 對人關係에 직접 참여케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는 과정으로서 實驗하고 分析하고 學習한 다음 학습한 것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즉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참여하는 人間關係의 멤버십을 향상시키는 것이 主目的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學習目標을 가진다.

- 1) 본인이나 타인의 意思表現이나 情緒的 反應을 통하여 感受性을 증대시킨다.
- 2) 본인이나 타인의 느낌에 관심을 集中하고 行動하는 결과로부터 知覺하고 學習하는 능력을 증대시킨다.
- 3) 集團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는데서 생기는 問題에 대하여 民主的이고 科學的인 接近方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價値觀이나 目的을 뚜렷이 하고 개발한다.
- 4) 개인의 행동이 外的 狀況에서 생기는 필요성과 부합하고 內的 心理要素와 일치하는가 검토하고 그의 價値觀, 目的, 意圖를 파악하기 위해 개념과 이론에 대한 통찰력을 개발한다.
- 5) 意圖와 行動을 보다 조화있게 유지하기 위한 行動型을 실험 개발한다.
- 6) 實驗을 통하여 學習된 것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實用能力을 발달시킨다.
- 7) 건전한 對人觀을 통한 成長 發達과 느낌, 動機, 行動을 分析해 보는 경험을 통하여 學習方法을 배우게 된다.

#### 1. 實驗室

10坪 내외의 방으로서 20여명이 둘러 앉을 수 있으면 된다. 실내에는 특별한 가구가 필요 없으며, 바닥은 신발을 벗고 앉을 수 있게 카펫이나 비닐을 까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온이 낮은 때에는 바닥이 차기 때문에 방석을 준비하게 된다. 그 밖에는 신발과 학생들의 소지품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면 실험실의 기본 조건은 갖추어 진다.

건물에서 실험실의 위치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통과하지 않는 조용한 곳이 바람직하며 외부 사람들이 들여다 보지 않게 창문이 설치되는 것이 좋다.

보다 완벽한 現代式 施設을 갖추려면, 우선 온냉방 장치가 되어 있어 항상 아늑한 온도를 유지하고 T.V. 촬영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래서 필요하면 實驗實習에서 나누는 對話를

녹음했다가 다시 들어보며 分析評價할 수 있고 集團活動에서의 표정이나 행동을 V. T. R. 시스템의 T. V. 수상기에서 재생시켜 볼 수 있게 된다.

## 2. 參加 人員數

實驗集團의 人員數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集團成員들의 느낌과 생각에 대해 몇 명의 集團이 相互作用하기에 편안하며 효과적인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Hackman 과 Vidmar 이 Yale 대학과 Illinois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명이 가장 적합한 수라고 나타났다.<sup>13)</sup> 그러나 다른 연구들(Ziller, 1957와 Miller, 1963)에서는 集團의 크기와 구성원들의 만족감하고는 일관된 연결성이 없다고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治療를 목적으로 하는 實驗集團(actualization therapy)에서는 비교적 적은 수(10명 이내)로 集團을 구성하며 成長을 목적으로 하는 集團(encounter group)에서는 12명 내외를 適定數로 잡는다.

그러나 集團의 性質과 集團의 機能과 目的 등 여러 變因들을 고려할 때 몇 명의 수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은 주장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大學의 學科目으로서의 實驗集團으로 實際性和 効果的인 측면에서 최소와 최대의 한계를 찾아봄이 중요하다고 본다.

최소의 수를 우선 일대 일의 두 사람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일대 일의 관계에서의 相互作用은 관찰자가 없기 때문에 客觀性이 없어지며 心理的 去來가 비교적 단순한 경험만 가능해진다.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는 일대 일의 관계만인 독립된 상태에서 생활하지는 않는다.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상태라도 제 3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것이다.

두 사람만의 관계에서 兩者의 견해가 충돌되면 그 關係를 유지하고 解決方法을 찾기가 어렵지만 제 3 자가 있을 때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즉 人間의 行動은 社會心理的인 것으로 어떤 한 상대의 期待에 의하지 아니하고, 나와 너 그 밖의 他人을 포함한 集團의 規範에 의해 옳고 그름이 가려지고 선택되는 것이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은 Curt Lewin 이 주장하는 서로가 共有하는 場을 포함시키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sup>14)</sup>

그렇다면, 實驗을 위한 集團은 두 명으로서는 구성될 수 없고, 세 명이라면 제 3 자 자체가 개인이 되어 단순한 場이 되고, 4명이라면 1대 1의 두 쌍으로서 확대된 1대 1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불완전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5명으로 構成된, 즉 1대 1의 관계

13) Hackman, Richard J., & Vidmar, Neil, Effects of Size and Task Type on Group Performance and Member Reactions, *Interpersonal Behavior in Small Groups*, ed., Richard J. Ofshe, Prentice-Hall, New Jersey, 1973, pp. 285~299.

14) Asch, Solomon E., *Social Psychology*, Prentice-Hall, New York, 1952, Chap. 5.

가 3명의 他人으로 構成된 場이 포함된 집단이 社會心理的 相互作用이 최대로 가능한 最小의 理想的인 集團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대수의 限界를 찾기 위해서는 個人의 心理—生物學的 限界(psycho-biological limitation)를 고려하고 變化 媒介體로서의 集團의 力動性和 함께 心理—生態學的 領域(psycho-ecological boundary)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行動科學者들이 人間の 行동을 研究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은 他人을 만나는 한 個人의 行動은 우연히 산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領域에서 時間과 空間의 軌跡內에서 行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Roger Barker 은 이 영역을 行動背景(behavior setting)으로 표현하고 있으며,<sup>15)</sup> Curt Lewin 의 場의 理論에서는 生活領域(life space)으로 표현되고 이 영역에서의 集團의 力動性(group dynamics)은 한 個人의 심리생물학적 상태에서의 동기를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향해 전진하게 하는 즉 배우고 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sup>16)</sup>

여기에서 論하고 있는 集團의 概念은 社會心理學的인 것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서로 對面의 關係를 유지하는 集團이다. 소위 1차적 집단(primary group)으로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우리」의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는 친밀한 關係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集合體인 것이다.<sup>17)</sup>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일정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이러한 關係를 유지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서 찾고 있는 實驗集團의 최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新生兒는 自己와 他人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이고 차츰 成長해감에 따라, 性格에 따른 개인적 차이는 있지만, 이 수는 증가되어 大學生 수준의 나이와 발달 정도로는 가장 좋은 環境條件下에서 20명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주장은 과학적인 研究調查에서 증명된 사실이라기 보다는 大學生들로 구성된 對人關係 實驗集團을 오랫동안 지도해 본 교수들의 경험에서 얻어진 판단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對人關係 科目을 5명 이하가 신청할 때는 科目을 개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20명을 초과하는 수가 수강신청을 했을 때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大單位 講義가 가능하겠으나 實驗集團은 20명을 초과하지 않는 單位로 나누어 따로 실시하는 運營이 중요하다 하겠다.

15) Barker Roger G., *On the Nature of the Environment*, Current Perspectives in Social Psychology, ed., Hollander & Hunt,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pp. 19~28.

16) Cartwright, Dorwin, *Achieving Change in People*, ibid. pp. 520~522.

17) Sprott, W.J.H., *Human Groups*, Penguin Books, England, 1975, pp. 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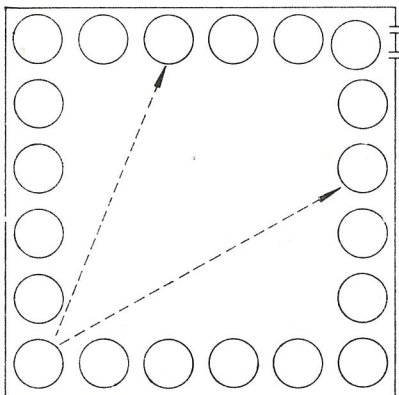
### 3. 構造的 運營方法

제한된 시간내에서 최대의 人員間的 集中的 相互作用을 통하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實驗集團은 초기에 集團을 組織化하고 目的을 밝히고 運營상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運營方法은 우선 지도교수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集團形成이나 運營節次에 관한 것에 치중하게 된다. 운영절차에 지도교수가 개입하는 목적은 實驗集團 構成員들간의 進行過程을 지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sup>18)</sup> 集團의 相互作用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學習이 가능하게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하여 集團의 形態나 節次에 일시적 변화를 構想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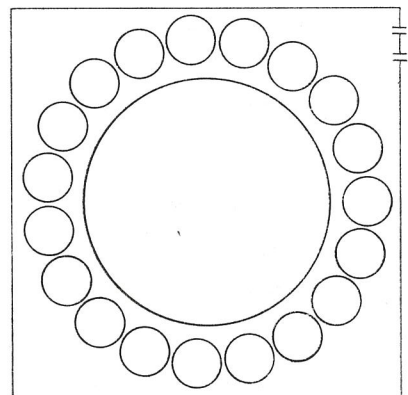
교수가 構想한 運營절차는 어디까지나 제안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集團構成員들이 스스로의 사정이나 판단에 따라 討論하고 수정할 수 있게 開放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일단 교수의 제안이 주어지면 이것이 이 集團의 性質이나 目的에 副應하는가 集團自體內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集團自體가 효과적인 運營方法을 스스로 찾는 方法을 學習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도교수는 集團過程에 대한 충분한 理論과 知識의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實驗實習의 경험을 반영하여 새로 구성된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構造的 運營節次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절차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배적 입장을 택하는 것 보다는 조장자(facilitator)의 입장을 택하는 指導型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지도방법에서는 集團構成員 각자의 독특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集團의 結束力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學習의 목적을 가진 새로운 集團의 結束力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발전과정 측면에서 우선 기존 일반 社會體制 속에서 형성되었던 價値觀, 느낌表現, 行動型을 새롭게 가져 볼 수 있게 既存 結束力을 푸는(unfreezing) 계기를 마련함이 중요하다.



자연 자리 배치



조정된 자리배치

18) Luft, Joseph, *op. cit.*, p. 149.

그리고 운영과정에서는 助長者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集團活動에 참여하며, 학생들에게 感情移入(empathy)을 할 수 있고, 훌륭한 聽取(listening)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할 때는 다양한 情報의 供給源이 되어야 한다.

첫 회합에 실험실에 들어 온 학생들은 대개 당황한다. 신발을 벗고 어디에 앉을까 망설이다 대개는 벽에 잔등을 기대고 앉다보면 네모꼴로 줄지어 자리가 배치되기 쉽다. 그러면 모퉁이에 앉은 학생은 좌우 줄의 첫 학생 이외에 다른 학생은 보이지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서로 최대한 對面할 수 있는 자리 배치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원형으로 자리를 다시 조정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알린다.

1) 實驗室은 實驗集團만의 새로운 세계라 할 수 있다. 새로운 行動을 실험해 볼 수 있고 그 행동의 효과를 自覺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평가해 보고 內在化하거나 修正할 기회를 가진다.

2) 自身을 開放하고 心理的 에너지를 投入하는 만큼 새로운 것을 더 배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얼마만큼 開放하거나 에너지를 投入하는가 하는 문제는 각자 개인의 수준에서 자신이 결정한다.

3) 自身을 開放하고 새로운 行動을 시도해 본다는 것은 모험이 따른다. 實驗室 안에서의 價値는 이 모험을 최대한 허용하나 실험실 밖에서의 價値觀으로는 지탄이나 빈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實驗活動에서 나타난 개인의 私的 事項은 외부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해야 한다. 다만 集團活動 過程은 개념적으로 외부에 표현될 수 있다. 個人的 私的 事項에 대한 秘密保障은 약속되어야 한다.

5) 實驗實習은 전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全體過程이란 한 시간의 시종과 한 학기의 전체 실험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각이나 조퇴가 허용되지 않으며 추가 등록은 받지 않고 중도탈락은 곤란함을 밝힌다.

특히 4), 5)항에 대해서는 構成員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교수는 취지는 충분히 설명하되 集團別 性格에 따라 構成員들 스스로가 충분히 討論하고 스스로가 규범을 세우게 허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Cartwright의 주장에 의하면, 集團에게 중요한 意思決定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면 각자 책임감을 더 가지며 構成員 서로가 상대의 필요성에 더 지원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일반 시민생활에서 더 성숙되고 창조적인 개인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sup>19)</sup>

19) Cartwright, Dorwin, *op. cit.*, p. 524.

## 실험 1

첫 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계약이 끝난 다음, 처음 갖는 實驗은 4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1) 전체 학생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서 호흡을 세 번 크게 쉬고 눈을 감는다. 그리고 실험실은 우리가 마음대로 탐색할 수 있는 세계로써 자기의 능력에 따라 개척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실험은 3분 동안 진행될 것이며 그 사이에 눈을 뜨는 사람은 실험적 효과가 없으니까 가급적 뜨라고 할 때까지 눈을 뜨지 않도록 周知시키고 활동을 시작하게 한다. 실험 중 대화도 하지 않기로 한다.

**[관찰]** 대개 학생들은 활동하는 도중 다른 학생과 접촉하면 다른 곳으로 움직이며 벽쪽으로 가서는 더듬는다. 어떤 학생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으며 어떤 학생은 구석으로 찾아가 앉아 버린다. 간혹 同性을 만나면 상대의 몸을 만져 보는 학생도 있다.

**[대화]** 원형으로 돌아와 앉아 눈을 감고 말없이 활동하는 동안에 느낀 점을 자발적으로 말해 보기로 한다. 보다 많은 불안감을 느꼈던 학생들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거나 벽 쪽으로 가서 앉아버린 학생들이며 사람들과 부딪치거나 벽을 만져 본 학생들은 불안감도 있었으나 호기심을 갖고 활동하였음이 나타난다.

**[해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같은 상황에서도 각자의 행동과 느낌 동기는 달랐다는 사실과 어떤 제약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치거나 특히 異性間에 포옹도 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의 행동은 특히 불안한 상태에서는 일반적 영역 밖으로 쉽게 초월하지 않음을 말해 준다.

불안해서 움직이지 못한 극단적인 예로부터 아주 활발하게 활동한 다른 쪽의 극단 사이에 어떤 위치에 자신이 있음을 각자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

2) 다음은 전체 학생들이 두 줄로 서로 마주보며 서게 한다. 그리고 한 줄의 학생들은 눈을 감고 또 다른 줄의 학생은 눈을 뜨고 상대방을 인도하기로 한다. 호흡을 크게 하고 눈을 감게 한 다음, 눈을 뜬 학생들은 맞은편에 있는 눈감은 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생을 인도하기로 하고 짝을 지워 활동을 시작하게 한다. 그리고 눈감은 학생들은 지도교수가 그렇게 하라고 할때까지 눈을 뜨지 않기로 한다. 3분 정도 활동한 다음 행동을 멈추고 인도한 학생들은 한 쪽으로 모이게 하고 인도받은 학생들에게 눈을 뜨도록 한다. 누구로부터 인도 받았음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관찰]** 인도하는 학생들 중에는 앞에서 이끌면서 눈을 감은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인도자가 있는가 하면 뒤에서 방향만 제시하며 따라가는 후견자도 있다. 또 한편 인도받는 학생으로 하여금 활발하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한다거나 벽을 만져 보게도 하는 적극적인 인도자

가 있는가 하면 눈감은 학생과 같이 서서 가급적 움직이지 않으려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학생이 있다. 안전하게 친밀한 행동을 유발하게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 장난끼로 인도받는 학생을 골탕 먹이는 폭력자도 있다.

인도받는 학생들 중에는 인도받기 불안해서 활동하기를 주저하는 저항자가 있는가 하면 인도자에게 자기를 맡기고 비교적 자유롭게 행동하는 협동자들이 있다. 그리고 인도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의존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개척자가 있다.

**[대화]** 처음에는 불안했으나 인도자가 안전하게 보호하여 줌을 알게 된 후에는 신뢰감이 생겨 자유롭게 활동하게 됐다는 학생도 있고, 처음에는 믿었는데 인도자가 장난기가 있는 것을 안 다음에는 불안해지고 화가나서 인도자에게 순응하지 않게 됐다는 학생도 있다. 눈을 감고 혼자 활동할 때 보다는 훨씬 마음이 놓이고 안전하게 인도해 준 학생에게 고마움을 느꼈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차라리 혼자서 행동하는 것이 자유롭고 인도받는 그 자체는 오히려 부담을 주어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됐다는 학생들도 있다.

다른 학생을 인도하는 데에 책임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더 많은 경험을 시켜줄까 노력한 결과, 잘 호응해 주어 흐뭇한 기분을 경험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잘 해주고 노력하는데 믿지 못하고 호응을 해주지 않아 힘이 들고 상대방이 야속하더라는 학생도 있다. 또한, 장난으로 상대방을 골탕을 먹이니까 재미는 있었는데 나중에 미안하더라고 말하는 인도자도 있다. 인도하는 것이 인도받는 것보다 더 힘이 든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인도받는 것보다는 인도하는 편이 편하다는 학생도 있다.

**[해설]** 도움을 받는 데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움을 주는 것에 보람을 더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도움을 주고 받기가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작용의 역동성이다.

3) 실험 2)에서 도움을 주었던 학생과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이 각각 줄을 지어 마주 서게 한다. 그리고 역할을 바꾸어 실험 2)와 같이 실시한다. 즉, 도움을 받았던 학생은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도움을 주었던 학생은 인도받는 입장이 된다.

**[관찰]** 실험 2)에서 나타난 행동들이 모두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행동이 좀 더 활발해졌다.

**[대화]** 잘 인도받았던 경험이 있는 학생은 눈감은 학생을 비교적 잘 인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인도받는 학생이 협동한 관계에서는 만족하였으나 인도받는 학생이 불안하고 저항하는 관계에서는 힘이 들었다고 하였다.

인도받은 경험이 불만족했던 학생들 중에는 잘 인도해 보려고 노력한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당했으니까 자기도 상대를 골탕 먹이려고 한 학생들도 있다. 정성껏 인도해 보았던 학생들은 자신이 인도받는 입장에서 불안이 적었고, 인도하는 사람에게 협동하여 만족한 경험을 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자신은 정성껏 인도했는데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거칠게 대하여 줌으로써 실망하고 화가 나서 불만스러운 경험을 했다는 학생도 있다.

거칠게 인도했었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도 자기를 거칠게 취급할 것이란 생각때문에 모두 불안감을 느꼈으나 인도자가 정성껏 대해줌으로써 차츰 신뢰감이 생겨 나중에는 자유로워진 학생도 있고, 거칠게 다루는 인도자를 만난 학생은 나도 그랬으니 할 수 없다고 체념을 하거나 그래도 그렇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화가 나서 반항했다는 학생도 있다.

**[해설]**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보살핌을 잘 받았던 사람은 본인도 사회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의도가 상대로부터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뜻대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회로부터 부당하게 대우 받았던 사람들도 자기가 돕는 입장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만은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려는 사람도 있는 반면, 부당한 대우만 받았으니까 사회의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타인에게 거칠게 장난끼로 대했던 사람들은 입장이 바뀌었을 때 타인도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대와는 반대로 타인이 자기를 잘 보살펴 주면 안정감을 느끼고 다음 기회에는 자신도 타인을 잘 대해 주려고 생각하지만, 타인들이 자기에게 자신이 한 대로 거칠게 대해 주면 서로가 거칠게 대하는 행동이 일반화될 것이다.

도움을 주고 받는 경험을 통하여 대인관계에서의 태도가 서서히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4) 원형으로 앉은 채 각자가 전체 학생을 둘러 보게 한다. 그리고 그 중 비교적 아는 바가 적은 사람을 한 명씩 택해 짝을 짓게 한다. 그 다음 10분 동안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게 하여 상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을 알아 내게 한다. 실험실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시간을 맞추어 10분 후에는 실험실로 돌아 와야 함을 강조한다.

대화가 끝난 다음 다시 원형으로 자리를 정리하고 두 손을 뻗어 힘을 주거나 발을 뻗고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두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기지개를 펴는 등 간단한 동작으로 긴장을 풀게 한다(여학생은 실내에서 활동하기에 간편한 옷차림을 할 것을 첫 시간에 알림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었던 상대에 대해서 아는 바를 집단에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관찰]** 짝을 짓는 상황에서, 어떤 학생은 상대를 택해 찾아가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머뭇거리면서 있다가 타인에 의하여 선택된다. 대부분은 밖으로 나간다. 대개 몇 쌍은, 특히 여학생끼리 만난 어떤 쌍은 실험실 구석에 앉아 대화를 나눈다. 능동적인 남학생은 대체로 여

학생을 상대로 택하며 능동적인 여학생은 다른 여학생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짝 중에서 처음 상대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람은 비교적 피상적인 내용을 조심스럽게 상대의 눈치를 보아가며 소개한다. 만일 다른 짝이 좀 더 개인적 사항을 상세히 소개하면 그 때야 “나도” 하면서 처음에 소개하지 않았던 내용까지 말한다.

짝 중에서 첫 소개자가 비교적 개인적인 사항을 상세히 소개하면 그 다음 소개자도 상대에 대해 솔직히 소개한다. 그리고 만족한 표정이다. 그러나 처음 소개자가 조심스레 상대의 피상적인 사항만을 소개하고 두번째 소개자도 여기에 맞추어 피상적 소개만을 하면, 그 다음에 이들의 표정은 비교적 굳어 있다.

**[대화]** 어떤 학생은 할 말이 별로 없어 둘이 같이 걸어 다녔을 정도로 대화가 적었다고 했으며, 어떤 학생은 상대가 너무 말을 잘해서 자신은 한 말이 별로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서로 대화가 잘 되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많은 말을 주고 받았다고 하였다.

대화의 내용에서는 대개 처음에는 형제가 몇이나 고향이 어디냐는 등 정보교환이 대부분이었으나 나중에는 뭘 좋아하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으로 감정이나 태도와 같은 내면적 내용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정보교환 정도로 끝을 맺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속상했다는 학생이 있고, 말을 많이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도 있었다. 그리고 서로 말이 통해서 즉 주거나 받거나 대화가 진전되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 상대방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호감을 갖게 되었다는 학생도 있다.

**[해설]** 우리는 서로가 모든 감각기관을 통하여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는 사실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다음 기회로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심리적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고 소극적 자세를 취하며 또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알고 사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자기에 대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욕구와 상대에 대해서 알려 하는 것보다는 내 것을 끝없이 털어 놓아야 하는 특수 욕구도 대화를 만족히 진행시킬 수 없게 한다.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알아 낸 사실을 집단에게 소개하는 방법은 한정된 시간에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즉 분담활동에 대한 집단토의의 효과를 실감하는 것이다.

## 실험 2

현 단계에서는 1대 1의 관계를 조월해서 전체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갈등상황에 직면하여 극복하는 경험을 하고 의사소통의 능력을 실험한다.

1) 조용히 마음을 가라 앉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종이 한장에 최근에 경험한 것으로 제일 기분 좋았던 일과 그 반대로 기분 나빴던 일을 각각 한 가지씩 적어 제출케 한다. 무기명이 바람직하다. 제출된 종이는 한데 모아 지도교수가 하나씩 읽어 나간다.

그 결과 같은 일에 대하여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며 한편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해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누구나 기쁨과 슬픔 등의 느낌을 갖는다는 자체만은 같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한다.

2) 보는 측면에 따라 좋도 될 수 있고 뉘도 될 수 있는 내용이나 도덕적이냐 현실적이냐 등 상반된 견해를 야기시키는 화제를 이야기한다. 즉 “겨울 여자”와 같은 소설을 소개하고 주인공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말하게 한다. 순결을 중요시하는 학생들은 주인공을 창녀와 같은 천한 여자로 몰아부치는가 하면, 육체를 초월한 사회활동에 자유로운 마음씨 착한 선녀와 같은 여자라고 찬양하는 측도 있다. 그런가 하면, 성도덕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있으나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럴 바에는 처세를 자유롭게 하는 사회성이 풍부한 현대여성답다며 각자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학생도 나온다. 대학생의 실험집단에서는 견해가 대체로 3분화 된다.

여기에서는 자기의 의견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가, 격분했을 때 그 느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타인을 관찰하고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며 또 나아가서 효과적 처리 방법을 모색해 본다. 이는 곧 느낌,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해로운 결과가 생기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다움을 느껴보는 경험이 된다.

3) 카드에 어떤 주제를 써서 한 학생에게 보여 주고 그 학생이 그 주제를 카드를 읽지 않은 다른 학생에게 말을 하지 않고 설명하게 한다. 관찰하는 다른 학생에게도 그 카드를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해서 미안하다는 뜻을 몸짓으로 표현하게 한다. 그리고 카드를 읽지 않은 학생에게 상대방의 몸짓에 대하여 역시 말을 쓰지 않고 반응하게 한다. 끝난 뒤에 카드를 읽은 사람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 같으냐고 말하게 한다.

또 두 학생에게 각각 다른 내용의 카드를 보여 주고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게 한다. 즉 한 카드에는 상대가 좋아서 가깝게 교제하고 싶다는 내용이고 다른 카드는 싫어서 교제를 끊자는 종류의 내용일 수 있는 것이다.

이 연습을 통해서서는 자신의 의사를 몸동작을 통해 얼마나 효과있게 표현할 수 있는가 또는

상대방의 몸동작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가를 연습 당사자들은 물론 관찰자들도 인지하고 학습하게 된다.

### 실험 3

각자가 자기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겉표면의 나”와 “내면적인 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알게 되고 서로 믿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는 실험이다. 그리고 말의 내용과 몸동작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검토하게 된다.

1) 신체적 연습(exercise)으로서 모든 학생이 둥글게 둘러 서서 어깨동무를 한다. 그리고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좌우로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며 움직인다. 3분 뒤에 다시 원으로 앉아서 옆으로 돌아 앉아 앞 학생의 잔등을 두들겨 준다.

그리고 다시 자리를 정리한 다음, 각자가 자신의 대인관계 경험에서 어려웠던 점과 바람직했던 점을 이야기 하기로 한다. 학생들의 반응과 교수의 분석이 뒤따르기도 한다.

#### 2) 心理劇(Psychodrama)

심리극은 마치 다른 사람인양 또는 다른 상황에 있는 것처럼 참가자들이 역할 시늉의 형태로 상호작용을 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 봄으로써 참가자들은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연습을 통해 실제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 유형은 다양하나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

(1) A의 양심과 본심을 구별하여 A는 자기의 본심, B는 A의 양심으로 상호 작용을 해 본다.

(2) A는 자신의 입장에서, B는 C의 입장에서 A와 B가 상호 작용 해 본다.

(3) A는 C의 입장에, B는 D의 입장에서 A와 B가 상호 작용 해 본다.

역할시늉은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필요 이상으로 비생산적인 긴장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된 특정인을 잘 선택해야 하며 전후 관계 또한 잘 脚色해야 한다.

3) 신체적 연습으로서 한 학생이 서서 눈을 감고 호흡을 크게 한 다음 지도 교수의 지시에 따라 무릎을 굽히지 않고 뒤로 서서히 넘어진다. 뒤에는 두 학생이 서로 손을 잡고 넘어지는 학생의 잔등과 머리를 받쳐줄 준비를 하고 있다. 심리상태에 따라 불안한 학생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만일 실패하면 반복해서 성공할 기회를 줄이 중요하다. 모두 이 경험을 하게 된다.

인간의 싫은 면과 좋은 면을 말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자신의 어떤 면이 장단점인가 말한다. 여기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이 반응하게 한다. 여기에서는 다른 어느때 보다도 지도교



수가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을 심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학생이 있다면 긍정적인 면을 지적해 주어 자아를 유지하게 해야 하며 또 다른 학생의 심한 공격을 적정선에서 제지하게 하여야 한다. 주로 다른 학생의 반응은 말하는 학생의 장단점에 대한 지지나 공격으로 나타나기 쉽기 때문이다.

#### 실험 4

서로가 상대에 대한 관심과 평가의 대상이 되고 돕는 관계를 모색하고 진실된 자기를 찾아 미래를 설계한다.

1) 모든 학생이 협동해서 번갈아 가며 한 사람씩 행가례를 한다. 행가례를 받을 학생은 반듯이 바닥에 누워 눈을 감게 하고 호흡을 몇 번 크게 쉬게 한다. 역시 충분한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 명이 들어 올려 구령에 맞추어 충분한 인원이 받쳐 행가례를 치게 한다. 행가례를 받을 때는 몸을 수평으로 유지 하도록 미리 주의를 준다.

이제는 각자가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평가 받기를 원하는 단계가 되었다. 타인의 도움으로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가 알지 못하던 부분을 발견하고 싶은 욕구인 것이다.

자리를 정리하고 한 학생씩 대상으로 하여 어떤 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체 학생들이 솔직히 말해 준다.

2) 방 중심을 향하여 머리를 놓고 원을 그려 반듯이 눕는다. 눈을 감고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편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낮은 음으로 조용한 음악을 들려 주며 지도교수는 말한다.

무한한 우주 속의 지구 그리고 45억의 인간, 수 많은 국가들 중에 강대국들 그리고 분단된 우리 국토, 우리가 사는 도시와 지역사회,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과 더불어 “나”라는 존재는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유일한 것이라고.

다음은 그 자세로 각자 자신의 신체 부분을 느껴 보게 한다. 그리고 서서히 눈을 뜨게 한다.

자리를 정리한 다음, 각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라고 포부나 대인관계에 대하여 말한다.

## IV. 評 價

評價는 3종류로 구별시킬 수 있다. 그 첫째는 일반 學科目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점을 주기 위한 評價다. 그것을 위해서는 出席과 中間 및 學期末試驗 그리고 課題(책을 지정해 주고 읽

어서 독후감을 써 제출케 한다)를 통한 評價에 의하여 학과목 점수를 결정한다. 그러나 두번째와 세번째 방법은 학점과는 관계없이 集團討論을 통하여 實驗實習에 대한 構成員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며, 實習前과 實習後에 각자가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設問調査를 통하여 알아 보는 方法이다. 세째의 방법은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즉 實習을 하지 않는 기존 방법의 강의 위주의 수업과 실습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수업방법의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둘째와 세째 방법에 대하여 다루기로 한다.

### 1) 評價會議

終講 뒤에 評價會議를 따로 갖는다. 회의장소는 우선 實驗實習室을 택할 수도 있고 캠퍼스를 떠나 회식을 하면서 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서 야외 캠프장에서 一泊을 같이 하면서 評價會議를 가질 수도 있다.

이 會議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생각을 表現하며 다음과 같은 면에서 評價한다. 實習內容과 進行過程에 대한 것과 지도방법에 대해서도 거론하게 되며 他人의 변화에 대해서도 관찰한 바를 비교적 솔직하게 말하게 된다. 最終的으로, 實驗實習을 통한 경험에 대해서 포괄적인 견해를 말하게 된다.

### 2) 說問調査

集團에서의 集中的 經驗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참가자에게 생긴다고 기대한다.

(1) 自身이나 他人에 대하여 개인으로서의 特性과 인간으로서의 一般性を 확인하여 再認識한다.

(2) 현재의 느낌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認定하며 表現하는 데 자유롭게 된다.

(3) 효과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생기고 비효과적인 행동은 고치려고 한다. 意思疏通이 자유로워진다.」

(4) 自身을 孤獨한 개인으로 보지 않는다.

(5) 成就感을 느끼고 進就性이 強化된다.

(6) 對人關係를 人間化한다. 人間을 존중한다.

(6) 對人關係에서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지며 융통성이 생기며 개방적이며, 친절감을 갖게 된다.

(8) 對人關係에서 책임성이 생기며 협동을 중요시 하게 된다.

위와 같은 항목의 내용은 存在與否의 성질도 아니며 認知의 與否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측정할 것도 아니다. 위의 사항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질의 것인데 변화의 정도는 連續線上의 어느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진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즉 기대하는

항목 중 肯定的인 측면은 정도가 높아지면 바람직한 現象이며 否定的인 측면은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設問內容은 위에 열거한 각 항목에 대한 몇 개의 間接內容의 質問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각 질문항목에 대한 정도를 “아주 적다”는 1로 “아주 많다”는 5로 표시하여 5단계로 구분하여 택하게 하고, 肯定的인 항목에서는 1에 대하여 1점, 5에 대하여 5점을 주고 否定的인 항목에서는 1에 대하여 5점, 5에 대하여 1점을 주어 合算한다. 이와 같은 設問紙를 학기초와 학기말에 각각 作成하게 하여 학기초의 총점과 학기말의 총점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하여 한 개인의 변화 정도를 알아 낼 수 있게 된다.

또, 실험을 병행한 학급과 강의만 실시한 학급과의 차이 정도를 통해 두 학급의 학기초와 학기말의 차이를 비교하여 두 학급의 教育的 效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두 학급의 학점 성적도 같이 비교한다면 對人關係의 知的向上과 應用能力의 양면에서 비교할 수도 있게 된다.

## V. 結 言

集中的 集團經驗을 통한 對人關係 實驗은 實驗室 運營에서나 實驗實習의 內容面에서 새롭고 강력한 學習方法으로 대두되고 있다. 實驗實習을 병행하는 對人關係 學科目에서는 강의 내용으로 전달되는 知識을 知的作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경험을 통하여 試行錯誤, 代理學習(vicarious learning), 模倣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학습방법에 의하여 認知하게 된다. 실험실습에 의하여 認知된 知識은 응용되어 실천될 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데 더욱 意義가 있다.

對人關係의 知識을 實踐한다는 뜻은 對人關係 能力이 向上됨을 암시한다. 그러나 實驗實習에서 이루어지는 社會心理的 相互作用의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참여자들에게 삶에 대한 자세에 변화를 야기시키고 성격의 변화도 가져오는 부수적 효과도 생기는 것이다.

사실, 對人關係의 能力은 知識이나 技術만의 향상으로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삶에 대한 뜻과 인간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달라질 때 새로운 行動의 動機가 생기며, 더 나아가 性格의 變化가 생길 때 知識이나 技術 그리고 行動이 자연스럽게 肯定的 對人關係를 유지 발전시키게 되며 그것을 통해서 만족한 개인의 삶과 社會發展이 이룩된다.

실험실에서의 活動은 주로 言語的인 練習과 非言語的인 練習으로 大別된다. 그런데 言語的 練習은 일상생활에서 특히 세미나 스타일의 學習方法으로나 對話의 형식으로 특별히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겠으나, 非言語的 練習은 對人關係의 實習內容으로서 독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意思疏通이 조장되기 때문이다. 非言語的 練習은 개인의 인상, 생각, 느낌과 경험을 교환하는데 범위를 넓히고 言語를 補充하는데 쓰인다. 이것은 對話의 內容이 아니라 對話가 가능한 한계를 초월한 영역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集團霧圍氣가 신속히 바뀌어 질 수 있다. 抽象的이며 觀念的인 實體나 言語로부터 身體的 動作으로 주의를 돌리면 心理的 霧圍氣가 신속히 바뀌게 된다.

셋째, 새로운 발견의 前後關係가 확대된다. 個性이 認定되고 受容된다면 개인들은 신체적 움직임으로써 行動하고 反應하는데 있어서나 自身과 他人을 관찰하는데 있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기회를 갖게 된다.

네째, 實驗的 學習을 위한 特殊與件이 조성된다. 霧圍氣 造成을 위한 노력, 즉 틀에 박힌 주장을 막고 소극적 자세를 약화시키고 현재 여기에서의 問題를 다루도록 周知시키고 서로를 시험하고 참여를 장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없게 된다.

다섯째, 細部の 構造를 再編成한다. 재래식 연습이 知的이며 表面的이었던 것에 반하여 身體的 練習은 深衷의 特性과 對人關係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內的 作用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래서 對人關係를 위한 實習은 생각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身體的 練習은 實習過程에서 일정한 週기로 배정함이 중요하겠으나 일단 배정되었던 연습의 종류라 할지라도 集團의 狀況을 파악해서 그것을 빼고 다른 것을 追加 代置하여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여섯째, 身體的 活動은 移行效果를 제공한다. 言語를 통한 集團活動에서는 새로운 段階(主題)가 시작될 때마다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데 身體的 練習은 이러한 긴장감을 가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段階가 이어지게 하는 효과적 가치를 가진다.

일곱째, 動作은 文化 뿐만 아니라 個人的 차이를 표현한다. 현재의 動作이 과거의 經驗에 입각하는 경향이 많음을 비추어 볼 때 현재 노출되는 行動에는 現代人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文化의 本質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같은 文化의 背景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활동에서 特性을 나타내는 個人的 個性을 認識케 하는 계기가 된다.

對人關係 實驗實習의 일부는 극히 科學的 接近을 취하는가 하면 또 個人的 特性, 集團의 狀況을 고려한 여러가지 活動은 藝術性 즉 行動藝術의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實驗實習을 指導할 수 있는 사람은 行動科學의 學問的 背景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제의 교육 배경이나 집단활동을 지도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集團力動性에 直感的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教育方法論 측면에서 볼 때 實驗實習을 병행하는 對人關係科目은 3차원적인 학습방법이라 주장할 수 있다. 講義로 실시되는 내용은 學問中心의 教育方法으로서 合理性을 다루어 이것의 일반적 轉移性을 인정하면서 이제까지 누적되어 온 合理的 論議, 즉 理論을 주입하게 된다. 그리고 發見學習의 方法은 학생에게 既存理論이나 知識을 주입하는 대신, 교육자는 학생

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命題, 즉 刺戟을 제공하는 方法의 學習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sup>20)</sup> 그러나 對人關係를 위한 實驗集團에서는 集團의 力動性을 이용, 스스로가 相互作用을 통해 命題(刺戟)를 제시하고 여기에서 事實을 발견하여 認知하거나 變化하는 學習過程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抽象的인 느낌, 동기, 행동과 같은 概念을 다루는 對人關係와 같은 學科科目은 여기에 대해서 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實踐을 필요로 하는 應用學問으로서 講義와 集中的 實驗集團을 이용하는 實習이 병행되는 教育方法이 보다 效果的임을 주장하게 된다. 우선 本 연구를 기초로 하여 對人關係 科目의 理論的 發展과 效果的 實驗施設이나 方法이 계속 개발되어 大學 科目으로서 뿐만 아니라 社會教育으로 對人關係 訓練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集中的 實驗集團은 다른 학과목의 實驗實習 方法으로도 이용될 可能性이 展望된다.

#### 參 考 文 獻

- 趙成慶, 感受性訓練 프로그램, 行動科學 研究所, 1972
- 趙成慶, 社會事業教育에 있어서의 對人關係論의 重要性, 社會事業教育學會誌, 韓國社會事業學會, 1979
- 崔源亨, 發見學習의 性格, 崇田大學校 論文集 第10輯, 崇田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0
- Erikson, Erik H., Identity and the Life Cycle, 金鮮心 譯, 人間의 生活週期, 人間의 行動發達과 環境, 進興文化社, 1980
- Fromm, Erich, *The Art of Loving*. 이용호 옮김, 사랑에 관하여, 백조출판사, 1973
- Harris, Thomas A., 李炯得·李星台 共譯, 人間關係의 改善과 治療, 中央適性研究所, 1974
- Asch, Solomon E., *Social Psychology*, Prentice-Hall, New York, 1952
- Barker, Roger G., On the Nature of the Environment, *Current Perspectives in Social Psychology*, ed., Hollander & Hunt,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 Cartwright, Dorwin, *Achieving Change in People*,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 Cho, Song Kyong & Kim, Hwa Joong, *Sensitivity Training in Korea*, Korean Institute for Research in Behavioral Sciences, 1973
- Hackman, Richard J. & Vidmar, Neil, Effects of Size and Task Type on Group Performance and Member Reactions, *Interpersonal Behavior in Small Groups*, ed., Richard J. Ofshe, Prentice-Hall, New Jersey, 1973
- Luft, Joseph, *Of Human Interaction*, National Press Books, California, 1969
- Mead, George H., *On Social Psycho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 Schutz, William C., *The Interpersonal Underworld*, Science & Behavior Books, California, 1966
- Shostrom, Everett L., *Man, the Manipulator*, Bantam Books, 1968
- Sprott, W.J.H., *Human Groups*, Penguin Books, England, 1975

20) 崔源亨, 發見學習의 性格, 崇田大學校論文集, 第10輯, 1980, pp. 59-72.

